

추경안, 마중물되도록 신속히 국회 통과

박대통령, "휴가철 내수진작 기회...국내서 보내는게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정부가 제출한 11.8조원 규모의 추경안이 메르스로 인해 위축된 민간 소비와 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국회 통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빚으로 남게 될 위험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회복세 지인과 엔화 약세 등으로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예기치 못한 메르스 충격과 최근 그리스 사태에 이어서 중국 증시 급락 등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돼서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거시정책도 서로 공조해야 효과가 배가되는데 6월 금리인하가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추경안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과의 오찬에 참석해 지방자치 20년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세입보전은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세입 부족이 확실시되는 데도 보전하지 않고 내버려 두게 되면 하반기에 그만큼 재정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어려운 경제에 더욱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과거 세출 추경시에도 세입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세입 추경도 함께 추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 반영된 SOC 사업이 총선을 겨냥한 게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지만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법 제89조에 경기침체 발생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메르스 피해 대책뿐만 아니라 원래 하기로 돼 있는 사업을 조기 완공해서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 보강을 하기 위한 민생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추경안이 늦어져

거나 삭감되거나 하면 결국 서민, 중산층과 우리 주위의 어려운 분들의 생활부터 팍팍하게 될 것"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조속하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대한 배려해서 하루 빨리 추경안을 심의·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에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에 대한 대응과 함께 국내 경기회복을 위해 우리 경제의 양대 축인 내수 진작과 수출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먼저 추경안의 국회 통과와 본격적인 집행에 앞서 내수 살리기를 위한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본격적인 휴가철

이 시작되는데 이를 국내 소비 진작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외래 관광객 입국이 완전하게 정상화되기까지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보다 많은 국민들이 해외보다는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라며 "각 부처는 하계휴가를 계기로 '국내 여행 가기' 운동에 솔선수범하고, 관련 기관과 민간에서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내수 진작 운동이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도록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수출경쟁력 활성화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수출 활력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마련된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 등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우도명 기자

사람과 자연의 공존 세계 리더스 포럼 개최



전세계 저명인사들이 사람과 자연의 공존에 관한 주제로 자유로운 대화를 펼치기 위해 7일부터 9일까지 제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5 세계리더스포럼'에 모였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인구소크', '인간 없는 세상' 등의 저서로 국내에 잘 알려진 앨런 와이즈먼이 기조연사로 참여했다. 와이즈먼은 미국의 유명 언론

인이자 작가로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관한 저술활동을 해왔으며 그의 저서 '인간 없는 세상'은 타임지에서 '2007년 최고의 논픽션'으로 선정된 바 있다. 와이즈먼은 기조연설에서 이번 포럼의 주제인 '자연에서 평화와 공존의 길을 찾다'와 관련해 사람이 지구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FTA 발판으로 한-베트남 교역

700억불 목표 달성 추진

제14차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가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과 응웬 쯔 중(Nguyen Chi Dung) 베트남 기획투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해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동위는 (우리측) 외교부,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국토부, 고용부, 산림청, 주베트남대사관 및 (베트남측) 기획투자부, 외교부, 총리실, 재무부, 산업무역부, 교통부, 노동보훈사회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농업농촌개발부, 중앙은행, 주한베트남대사관 관계관이 참석했다.

양측은 1992년 수교 이래 양국간 교역규모가 60배 이상 확대되는 등 경제협력관계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음을 평가하고, 한-베 FTA의 타결이 2013년 9월 양국 정상 합의한 2020년까지 양국 교역규모 700억불의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베트남 교역규모는 4.93억불(1992년) → 303억불(2014년)로 약 61배 증가했으며 2013년 9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시 2020년까지 교역 700억불 목표를 설정했다.

한-베트남 FTA는 2014.12월 타결, 2015.5월 정식 서명,

2015.7월 국회비준동의 절차 진행 중이다.

특히 5월 5일 정식 서명된 한-베 FTA로 인해 양국간 상품 교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등도 활성화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동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양국의 국내절차를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투자 및 산업, 고용노동, 개발, 영사 협력 등 전반적인 양자 경제협력과 지역 및 다자무대에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우리나라가 베트남 내 제1투자국(2014년 누적 기준 372억불)으로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투자 중심의 질적 변화를 이루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서, 베트남내 투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진출기업에 대한 투자 및 경영 환경을 개선시켜줄 것을 베트남측에 요청했다.

외교부는 전경련 및 현지 진출기업으로부터 베트남내 투자 및 경영 영상 애로사항을 접수해 이번 공동위에서 베트남측 대표단에 전달했다.

우리측은 교통·인프라·에너지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호치민-나짱 고속철, 호치민 지하철, 떠반-년짜 고속도로, 화력발전소, 중부원전 등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과 베트남 금융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베트남측은 상기 요청들을 검토해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우리측에 양국간 무역불균형 시정 노력,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 송출 확대, 비자간소화 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양측은 베트남이 우리나라 제1의 ODA 협력대상국으로서 그동안 양국간 개발협력력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점을 평가하고, 베트남의 사회경제 발전전략 추진과정에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적극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대베트남 ODA 지원 실적은 10.4억불(1987-2013) (무상 2.8억불, 유상 7.6억불) - 2013년도 2.4억불, 2014년도 1.9억불(잠정)이다.

양측은 다자 및 지역차원에서 APEC과 한-아세안/한-메콩 협력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태우 기자

사업장 환경관리 선진화 기술 협업

환경부가 수질, 대기 등 환경 분야별 오염자감 방식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성공을 위해 국내 최고의 기술전문가로 꾸려진 '통합환경관리 기술작업반(이하 기술작업반)'을 출범

시킨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일 서울 중구 프래지던트호텔에서 기술작업반 출범식을 갖고 최신 환경 기술을 분석하여 경제적이면서도 오염저감 효과가 우수한 환경기술을 선

정하는 등 기술 중심의 환경관리 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출범식에서는 기술작업반 위원 총 144명에게 위촉장이 수여되며 이후 기술작업반 운영에 대한 세미나와 소통·협력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위촉된 위원은 향후 2년간 기술작업반 위원으로 활동한다.

Future Creator

상상력이 자라는 품의 공간을 짓습니다!

각종 전문·비전문·개발업은 입찰까지 입찰도
방안·역시·비교·추천·추천까지 가능. 30년 이상 노하우
늘어나고·확대·발전·성장·확대·확대·확대·확대·확대
신동아건설 Future Creator·신동아
각종 전문·비전문·개발업은 입찰까지 입찰도

신동아건설